



유럽 보험회사, 미래 경제충격 대 부분 감내 예상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보험연금감독청(EIOPA: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 Authority)은 보험회사의 자본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세 가지 거시경제 시나리오를 상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.

-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정상적 거시경제 시나리오, 거시경제 악화 시나리오, 물가급등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보험회사의 시장리스크, 유동성리스크, 보험리스크를 점검하고 보험그룹의 재무건전성 여부를 파악함.
 - 거시경제 악화 시나리오는 주변부 국가의 만기 국채상환 스트레스를 포함함.
-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될 Solvency II에 근거한 것으로 2010년 초에 이루어진 스트레스 테스트와는 구별됨.
 - Solvency II는 은행권의 Basel III와 연계되는 적정자본 요구기준으로서 최소요구자본(minimum capital requirement)과 지급여력 요구자본(solvency capital requirement)을 요구함.
- 대상은 27개 EU 회원국 및 4개 비회원국(아이슬랜드, 리히텐슈타인, 노르웨이, 스위스)의 129개 보험그룹임(221개 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로 구성됨).
 -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이들 보험그룹은 각국 보험시장의 60%를 차지함.
- 특히,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의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주변부 국가의 국채를 다량 보유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그리스 등 주변부 국가의 채무불이행이 유럽 보험그룹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짐.
 - 영국계 바클레이 은행에 따르면 2010년 9월 말 현재 유럽 보험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스 국채는 341억 달러이며, 이는 유럽 은행들이 보유한 683억 달러의 절반 수준임.
 - 프랑스계 보험회사들이 128억 달러의 그리스 국채를 보유해 가장 많았고, 다음은 이탈리아(57억 달러), 독일(50억 달러)의 보유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.

■ EIOPA가 공개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유럽의 보험그룹들은 자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충격을 대부분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.

- 거시경제 악화 시나리오 상정 시 129개 보험그룹 중 약 90%가 적정자본을 보유하여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함.
 -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13개(전체의 10%) 보험그룹은 Solvency II의 최소요구자본 기준에도 미달하여 44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- 주변부 국가의 만기 국채상환 불이행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5개 그룹(전체의 5%)의 자본수준이 최소요구자본 기준에 미달하여 34억 유로의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.
- 물가급등 시나리오를 상정할 경우 10개 그룹(대상의 8%)이 최소요구자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.

(Financial Times 7/4, Wall Street Journal 7/4)